투르 드 코리아 강진 질주 완연한 봄날씨를 보인 23일 강진군 일대에서 벌어진 국제 도로 사이클대회인 '투르 드 코리아 2010'에 참가한 각국 선수들이 푸른 보리밭을 뒤로 하고 힘차게 페달을 밟고 있다. /연합뉴스

200만 하나된 전남 건강체전 열린다

27일 화순서 개막… 22개 시·군 6000여명 참가 나흘간 열전

전남도민들의 한마당 스포츠 축제인 제49회 전남도민체육대회(이하 도민체전)가 오는 27일부터 4일동안 대회 사상 처음으로 화순에서 열린다.

'문화중심 화순에서 하나된 건강체전' 슬로건 아래 열리는 이번 대회는 역도·바둑 2개 종목이 시범종목으로 추가, 총 20개 종목에 걸쳐 22개시·군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5988명의 임원·선수가 참가한 가운데 종합채점 방식에 의한 시·군대항전으로 치러진다.

특히 이번 대회는 보성(2006년), 강진(2007년), 고흥(2008년), 영광(2009년)에 이어 군 단위에서 도민체전이 열린다는 의미에서 화순군민들의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 대회는 개·폐회식을 실내체육관에서 개최한다는 것이 특이하다.

화순은 이번 대회에서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를 적극 활용하여 실속있는 개·폐회식을 치르겠다는 계산이다.

이번 대회는 올해부터 역도·바둑을 시범종목으로 추가함에 따라 정식종목 18개에 시범종목 2개를 합친 총 20개 종목으로 진행된다.

대회 개회식은 27일 오후 5시부터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에서 진행된다.

이날 개회식은 식전행사로 한천농악단의 체전 성공 터밟기 공연과 특공무술 공연단의 축하공연, 원앤원의 타악과 비보이, 중앙무용단의 화려한 녹색울림의 소리 공연 등이 이어지면서 분위기가 한껏 달구어질 전망이다. 이어 22개 시·군선수단 입장, 개회 선언, 대회기 게양, 성화 점화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개회식 행사의 최대 관심사는 성화 최종 주자와 실내 개회식에 따른 점화 방식이다.

성화 최종 주자는 2008 베이징올림픽 배드민턴 혼합복식 금메달리스트이며 화순 출신인 이용대(삼성전기·현 국가대표)가 그 주인공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성화 점화는 실내에서 작은 성화대에 점화 된 후 체육관 밖 성화대까지 이어지는 방식으로 개회식의 색다른 볼거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목포여상 2년만에 대통령배 우승 스파이크

강호 남성여고 꺾고 4전승
문슬기 대회 대회 최우수상

목포여상이 2년만에 대통령배 대회 정상탈환에 성공했다.

목포여상은 지난 22일 강진국민체육센터에서 막을 내린 제44회 대통령배 전국남녀중고배구대회 여고부 마지막 리그전에서 문경원(2년·라이트)·문슬기(레프트)·김주하(이상 3년·센터)의 맹활약에 힘입어 강호 남성여고를 세트스코어 3-1(25-22, 25-16, 23-25, 25-14)로 제압하고 4전 전승을 거두며 우승했다.

이로써 지난 2008년까지 대회 2연패를 기록하다 지난해 정상의 자리를 내줬던 목포여상은 2년만에 우승기를 되찾아왔다.

목포여상의 우승은 작전의 승리였다. 평소 속공과 시간차 공격에 주력했던 목포여상은 이번 대회 출전팀들이 센터 블로킹이 강한 점을 파악, 양쪽 날개를 이용하는 공격으로 작전변경한 게 주효했다.

남성여고와의 경기는 사실상 결승전이었다. 두 팀은 출전 5개팀이 풀리그로 펼쳐진 이번 대회에서 3차전까지 한 게임도 내주지않고 3승을 기록했다.

문슬기는 대회 최우수선수상도 받아 기쁨 두배였다. 목포여상은 또 서한누리가 세터상, 김주하가 공격상을 수상했으며 정진 감독은 지도자상의 영예도 안았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한국축구 아시안컵 조추첨 톱시드에

51년 만에 아시아축구 정상 자리를 되찾으려는 한국이 2011년 카타르에서 열릴 아시안컵 본선 조추첨에서 톱시드에 배정됐다.

아시아축구연맹(AFC)은 24일 오전 1시(한국시각) 카타르 도하의 아스파이어돔에서 진행될 2011 아시안컵 본선 조추첨 방식을 승인해 23일 오전 발표했다.

이번 대회에는 16개국이 참가하는데 개최국 카타르를 제외한 나머지 15개국은 2007년 아시안컵 성적을 기준으로 순위를 매겨 시드를 배정했다.

2007년 3위를 차지한 한국은 카타르를 비롯해 지난 대회 우승·준우승팀인 이라크·사우디아라비아 등 이번 대회 본선에 직행한 팀들과 포트1에 배정됐다. /연합뉴스

전남종별태권도선수권 오늘 구례서 개막

2010년 전남종별태권도선수권대회 겸 초등학교 대항 태권도대회가 24일부터 이틀간 구례실내체육관에서 열린다. 전남태권도협회 주최, 구례군태권도협회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그간 전국대회에서 입상하지 못한 전남 초·중·고 선수 700여명이 참가해 기량을 펼친다. /서승원기자 swseo@

보성군청 박행주 춘계역도 2관왕

보성군청 박행주가 제58회 전국춘계남자역도경기대회에서 2관왕에 올랐다.

박행주는 지난 21일 열린 대회 일반부 85kg급 인상에서 145kg을 들어올려 김태형(제주도청·135kg)·박제웅(용인시청·130kg)을 제치고 금메달을 획득했다.

용상에서 175kg을 기록해 2위에 그친 박행주는 합계에서 김태형을 누르고 우승, 2개의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생활 게시판

화촉

▲최용권·정명숙씨 차남 만상군 유명종·조효자씨 장녀 영주(광주일보 광고마케팅국 사원)양=24일(토) 낮 12시20분 광주 메리어트웨딩홀 1층(에메랄드홀)

▲임종훈·정형님씨 차남 진택군 최정두(목포경찰서 경무과장)·윤영남씨 장녀 승희양=24일(토) 낮 12시50분 경복궁웨딩컨벤션 2층(미소홀)

▲정석주(명성단조(주) 부사장)·김문정씨 아들 순재군 설연길·박정숙씨 딸 기선양=24일(토) 낮 12시20분 조선컨벤션 1층(춘추관)

▲정영욱((주)신성건축사 사무소 대표이사)·김인숙씨 차남 현중군 임원길·김진희씨 차녀 창연양=24일(토) 오후 1시40분 광주 메리어트웨딩홀 1층(사파이어홀)

▲강이만씨 아들 세진군 조규용·송연심(삼성화재)씨 차녀 조은양=24일(토) 오후 1시 누문동 교보생명빌딩 10층(포에버리더스 컨벤션홀)

▲김연수·김춘희씨 차남 승표군 정병은·유금순씨 장녀 지영양=25일(일) 낮 12시30분 조선컨벤션 웨딩홀 1층(영빈관)

▲최천수(삼호정식당 대표)·김정단씨 차남 정대군 박익섭·이옥연씨 장녀 순진양=25일(일) 오전 11시40분 경복궁웨딩컨벤션 1층(경복궁홀)

▲정화균(전 해남부군수·공무원교육원장)·이두복씨 아들 재학군 박영민·최인자씨 장녀 미선양=25(일) 오후 1시10분 경복궁웨딩컨벤션 1층(경복궁홀)

▲서정래씨 장남 이성우군 장천석(광주북구청 홍보계장)·허경자씨 장녀 혜진양=25일(일) 그랑시아웨딩타워 2층(사파이어홀)

▲이구연(하이트맥주 호남지역본부장)·신동분씨 장남 현주군 김대중·천경희씨 장녀 가영양=25일(일) 낮 12시30분 신양파트호텔 1층(그랜드볼룸홀)

부음

▲정순씨 별세 조성술·성철·성복·성천씨 모친상=발인 25일(일) 무등장례식장 203호. 062-515-4488.

▲정진순씨 별세 김병남·병곤·순희·경희·홍희·영희씨 모친상=발인 24일(토) 무등장례식장 102호. 062-515-4488.

▲서대열씨 별세 재완·재철·정혜씨 부친상=발인 24일(토)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2분향소. 062-231-8902.